

## 인문학적 상상으로 종교문화를 읽다

《열림과 닫힘》 정진홍 지음 | 산처럼 | 424쪽 | 값 18,000원

《열림과 닫힘》은 독특한 책이다. 인문학적 상상을 통해 종교문화를 읽고자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인문학의 실증적 방법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이 통념처럼 굳어진 학문적 풍토에서, 저자는 인문학의 실증적인 요소보다 '상상'에 입각하여 전개될 때 현재의 닫힘을 열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문학이라는 '보편적' 개념이 종교현상이라는 '특수한' 개념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실험적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서울대 종교학과 명예교수인 정진홍 교수의 사상적 편력이 녹아든 '학문적 이력서'라는 출판사의 서명은 나름대로 적절한 평가인 듯싶다.

저자는 "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경험에서 비롯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규정한다.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 내는 것도 결국 인간 경험이기 때문에, 특수한 문화현상이자 역사현상인 종교 역시 인간 경험의 표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경험, 물음과 해답, 문화, 역사, 언어, 몸, 타자 등 다분히 인문학적 주제들을 가지고 이들이 엮어내는 종교 현상을 다각도로 풀어내고 있다. '물음과 해답'이라는 주제로 종교의 개념을 규정하는 저자의 전개 방식은 저자가 종교학에 천착해 온 노학자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저자는 교리 혹은 종교적 신념만으로, 많은 종교가 이야기하는 '구원'을 이루지 못함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 구원이란 바로 "물음을 물으면서 시작하고 해답을 살면서 그 물음을 완성하는 문화"임을 천명하고 있다. 때문에 저자에게 물음은 해답을 사는 행위이고, 해답을 사는 행위는 다시 물음이 된다. 인문학적 상상으로 종교적 개념을 형상화한 저자의 학문적 탁월함과 함께 종교적 해답을 얻으려는 성찰이 돋보이는 책이다. **한문**

장동석 기자



## 시대를 뛰어넘는 천재들의 면모를 읽다

《한국사의 천재들》 김병기, 신정일, 이덕일 공저 | 생각의나무 | 349쪽 | 값 14,000원

두뇌가 명석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명명됐던 '천재'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역사의 천재들을 가려뽑은 기획서. 시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화를 일으켰으며 결국 재야의 인물로 살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대를 뛰어넘었다'는 후대, 즉 책을 집필한 역사학자들의 인정을 받은 인물 13인을 천재로 소개한다.

가령 조선시대 과학자로 불리는 장영실은 그가 발명한 물시계와 천문관측기구 때문이 아닌, 철저한 신분제사회를 뛰어넘은 점에 주목한다. 실리를 추구했던 세종의 눈에 발탁되었던 연유와 빛나는 족적은 일반적인 천재로서의 자격에도 상당수 부합한다. 또 성리학만을 인정하던 시절 스스로 천주교 조직을 만들어 교세를 확장했던 이벽이 있다. 우리나라에 천주교를 널리 알린 사람으로는 한국인 최초로 영세를 받은 이승훈을 손꼽지만 실은 그를 북경의 천주당으로 보내 영세를 받게 한 인물이 이벽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 것이다. 게다가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삼형제 모두 귀향살이를 해야 했던 정약용, 정약진 형제가 바로 이벽의 사돈지간이라는 점은 더욱 흥미롭다. 그 역시 사회의 흐름을 거스르고 자신의 신념대로 살다 갔지만 역사적으로 천주교가 이 땅에 뿌리내리게 된 씨앗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저자들이 세운 천재의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는 인물이다.

책을 집필한 세 명의 독립 사상자들 역시 책에 담긴 천재들만큼이나 현재 주목받는 인물들이다. 활발한 저작활동으로 대중역사서 전파에 힘을 쏟는 역사학자 이덕일과 황토사학자 신정일, 중화사관과 식민사학의 퇴치에 열의를 바친 김병기의 만남은 책에 소개된 인물목록이 특별하지 않다는 아쉬움을 잊게 하는 관심요소로 작용한다. **한문**

송보경 기자

# 한국형 집단주의에 대한 집요한 성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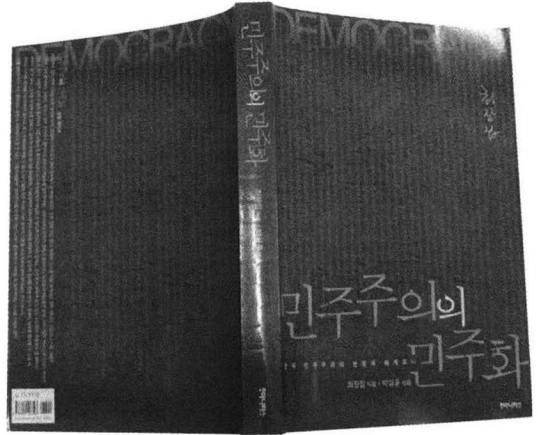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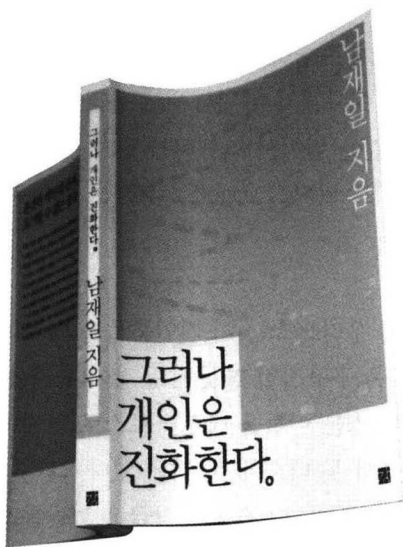
《그러나 개인은 진화한다》 남재일 지음 | 강 | 364쪽 | 값 12,000원

이 책은 그간 수행해온 '문화 읽기'의 날카롭고 풍성한 면모를 맛볼 수 있는 글들로 묶여 있다. 저자의 시선은 영화의 내러티브와 한국 사회의 집단적 행동에 잠재된 '그로테스크한 현대적 스펙터클'에 맞추어져 있다.

어느 날 저자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아이 러브 황우석 회원들의 집회를 구경한다.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적의에 가득찬 배타적인 패거리의 모습을 본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순진한 죽에 든다고 저자는 말한다. 좀 더 진화한 패거리는 "시스템 속에서, 집단의 등 뒤에서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고 적의 뒤통수에 소리 없이 독화살을 날린다. 그러고도 그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양상은 제복과 구호 속에 자신을 숨긴 채 폭력을 일삼는 점령군의 행태와 닮았다. '피해자는 선연한데 가해의 책임자는 저기 멀리서 아지랑이처럼 가물거리기만 하는 풍경' 저자는 이것이 '개인적 주체가 자신의 존재 증명을 위해 마주쳐야 하는 '그로테스크한 현대적 스펙터클'"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역사, 근대성, 사랑과 결혼, 소통, 관계 혹은 상처, 국가, 인종, 영웅, 예술 혹은 거짓말 등 다양한 키워드가 제기하는 문제와 의미들을 영화를 통해서 캐내고 있다. 이 글들에서 반복되는 목소리는 '집단에 대한 불신과 개인에 대한 희망'이다. '개인'은 진화한다'라고 불인 제목은 확신이 아니라 '희망'이다. 그 희망으로 이 책을 썼다는 저자의, 한국형 집단주의에 대한 집요한 성찰은 한국 사회에서 개인을 포박하고 있는 '그로테스크한 현대적 스펙터클'을 제거하려는 노력이며,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온전한 개인의 관계로 꿈꾸는 소망이 담긴 것이다. **한문**

김지희 기자



# 민중이 역사의 주역으로 서는 것, 민주화와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민주화》 최장집 지음 | 후마니타스 | 295쪽 | 값 15,000원

"한국의 민주주의가 절차적인 차원에서 공고화되고 제도적인 안정화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어찌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데 무기력해지는가?"

고려대 최장집 교수가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통해 던지는 우리 사회의 화두이다. 최 교수는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미친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다"면서 "제도든 정책이든 혹은 운동이든,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겠지만,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에서도 민주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책의 제목도 《민주주의의 민주화》라는, 어찌 보면 다소 도발적인 뉘앙스가 강하다.

최 교수는 지난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구조, 변화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중심 문제를 포착해 그 기원과 구조를 밝히고 대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 책은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민주화》는 최 교수가 천착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와도 같다.

특이하게 이 책에는 '편집자 서문'이 있다. 후마니타스 박상훈 주간은 편집자 서문에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저자의 관점과 문제의식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두 가지를 고려했다"고 전제하고 "하나, 저자가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과 논리구조를 부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의 초점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문**

장동석 기자